

이순신대교 낮엔 ‘화려’ 밤엔 ‘깜깜’

국내 최대 세계 4위의 명품 현수교 하루 830만원 전기료에 불 못밝혀

무려 1조703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현수교 중 국내 최대, 세계 4위 규모로 개통된 이순신 대교(사진)를 받아 되면 볼 수 없다. 뛰어난 야간경관을 자랑하는 부산 광안대교보다 좋은 경관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830여만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이다.

관리를 맡고 있는 전남도는 지난 3월 초 광양매화축제 당시 3일간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경관조명을 가동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달 청구된 2500여만원의 전기요금에 “당황”한 전남도는 이후 야에 이순신 대교 야간경관을 포기해버렸다.

이순신 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증가 등의 효과를 내심 기대했던 광양시나 여수시는 야간경관이 없는 쓸쓸한 대교의 밤 풍경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현수교로써 세계 4위의 규모를 갖출 대교를 통해 여수, 광양,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을 아우르는 관광코스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과 현실성 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부산에서 순천정원박람회 관람차 방문했다는 이모(41)씨는 “언론을 통해 이순신 대교의 규모와 개통 소식을 접하고 야간에 찾았는데 실망했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남도 역시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 등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광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야간 경관은 정부 방침으로 지금 당장 켜는데는 무리가 있다”며 “향후 교량유지관리사무소가 준공되면 야간경관 관리 및 과적·과속 단속을 하고 풍우, 교통 관련 실시간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인 이순신 대교를 국가가 아닌 여수시와 광양시가 공동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 야간경관에 대한 막대한 전기요금을 이들 지자체가 부담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뜰스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이순신 대교 야간조명은 더더욱 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순신 대교가 국도로 승격돼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 때까지는 필요하면 잠시 경관조명을 켜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순신 대교의 길이는 2260m로, 현재 일평균 1만9000여대가 통행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새누리당 감투 쓴 지역인사의 甲질”

최근 여수국가산단단지 내 기업들에게 전달된 새누리당 여수 감투지구당협위원장 위촉장 명의의 협조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협조문을 통해 기업들의 안전사고, 유독물 취급,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유출 등 무려 15가지의 자료를 ‘난데 없이’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새누리당이라는 집권여당의 ‘감투’를 쓴 지역인사가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하고 있다.

8일 여수산단 내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누리당 여수감투지구당협위원장 김모씨 명의의 ‘안전사고 및 환경영해물질 배출 관련 총점검 협조문’이 일제히 발송됐다.

이 협조문에는 새누리당 로고는 물론, ‘새누리 여수 1213-5-25’라는 문서번호까지 찍혀 있었다.

이 공문은 “여수산단 내 기업들이 고속성장하게 된 본질적인 근원은 국

지역 언론사 운영하는 인사
여수산단 기업들에 자료 달라
지구당협위원장 명의 협조문
일부 기업 “갑박으로 느껴”

가적인 각종 지원, 해당 지역의 안전사고 및 인명·환경 피해 등”이라며 “(하지만 기업들은)울산 등 타 지역에 비해 사회 환원과 지원에는 전무한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사고 등 자료 요청과 함께 “여수산단 내 친환경적이고 과학적인 역학조사는 물론 공단 가동을 총점검하고자 하니 협조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협조공문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업무 협조 관련 및 귀사의 발전과 국익에 공동기여하고자 하오니 금일 이후 대소 공신행사 및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통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에 산단 주요기업들은 “여당 지역구 인사가 이런 식으로 협조문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문을 접한 산단 모 기업 임원은 “중국발 수요감소로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뜰스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 지역구 인사가 기업들을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토로했다.

더욱이 여수산단은 지역구가 여수를 지역으로 분류되는데다 새누리당 여수감투지구당협위원장 김씨는 지역언론사와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여수감투지구당협위원장 김씨는 “여수산단은 시설 등이 노후돼 안전사고 위험이 큰 만큼 사고 방지를 위한 점검 등이 필요해 협조문을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 세 일 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

이 담철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



“전남 동부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과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담철(56)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은 “전남 동부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신안 출신인 이 지사장은 남부

대 교육대학원 석사 과정,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 수료했다. 1983년 공단에 입사해 서울지역본부, 본부 감사실, 숙련기술진흥국, 능력평가기획팀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정숙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구례군 마산면 하사마을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구례군 마산면 하사마을이 ‘2013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구례군은 8일 “하사마을에서는 오는 2015년까지 3년 간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마을 내 고령자 등을 위한 건강관리, 마을 주거환경 정비, 취미 활동 및 마을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 추진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사업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남대 평생교육원에서 오는 10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마을을 방문, 즐거운 노년생활, 기체조 등 전문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전북

순창, 오디·복분자·블루베리 年 320억 소득

郡, 직거래 유통 시스템·품질 규격화 등 지원 나서

순창에서 생산되는 오디, 복분자, 블루베리 등 베리류만 지역 농민들이 320억원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순창군은 이들 품목에 대한 지원을 집중, 직거래 유통 시스템 정착, 공동선별장 운영에 따른 품질 규격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과실은 오디뿐으로, 오디재배 136ha에서 올해 50억원의 벌어들인다. 올해 오디 작황은

보통 수준으로 균형을 맞췄으나, 이후 기상호조로 수량이 늘고 출하가격도 좋아 농가소득으로 이어졌다.

복분자는 430ha의 재배면적에서 200억원의 농업소득이 전망된다.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조기낙엽과 수체약화 등으로 수량은 감소했으나, 물량 부족에 따른 단가가 크게 올랐다.

군은 올해 복분자 품질향상과 생산

성 증대를 위한 비가립하우스 지원과 복분자 판매장 신축지원사업 등 8억원을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또 전국 최대의 블루베리 산지인 순창은 140ha에서 70억원의 농가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재배면적 급증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건강식품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며, 군은 블루베리 기반사업에 6억원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블루

베리는 80% 이상이 생과로 직거래 유통되고 있어 생과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선별장 운영에 따른 규격화된 품질과 친환경 재배 및 인증을 통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수”라며 전면적 친환경재배를 권장하고 나섰다.

베리류의 주산지인 복흥과 쌍치, 구림면 지역은 중간산지로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밤낮의 큰 온도차로 인해 과실의 당도가 높아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영농정착교육생 모집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8일 “귀농·귀촌인들의 농촌생활 적응을 돕고 영농기술 습득을 돕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10월7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영농정착기초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도농가에서 작목별 영농실습교육을 현장실습지원사업 신청자도 모집한다. 자체 강사 및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귀농·귀촌인들에게 귀농창업설계방법, 귀농정책방향, 성공적인 귀농전략, 농기계 운전실습, 주요작물 재배기술 등을 가르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익산시, 문화재 22종 보수·정비사업

익산시는 10월까지 국가지정 문화재 9종, 도지정 문화재 13종 등 22종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익산시는 올해 42억원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10월까지 300여명을 투입, 기

와 해체보수·노후 벽체보수·잡초 제거 등을 한다.

익산시에는 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왕궁리 오층석탑내 발견유물(국보 제123호), 왕궁리 5층석탑(국보 제289호) 등 95종의 문화재가 있다. /익산=박승기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보건소, 임산부에 다양한 출산 선물

고창군보건소가 저출산 극복과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만 하면 출산 전에 특별히 준비한 선물 마더박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박스에는 짬뽕배게, 기저귀파우치, 속싸개, 탁발인, 신생아 양말, 신생아용 손톱가위, 면봉, 손수건(5장) 등 9종의 푸짐한 선물이 가

득하다. 또 출산 후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하면 고막채운개, 놀이방 매트, 보온물병 등 원하는 품목 1종을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임산부 수첩을 가지고 오면 출산 전까지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입산제 및 철분제도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받게 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부안에서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따다

부안에서도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따는 길이 열렸다. 이 자격증은 소형 어선이나 낚시배 등을 운항하는 데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부안과 인천의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만 이뤄져 어민의 불편이 컸다. 면허 취득교육은 오는 24~26일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강사가 와서 부안

수첩에서 진행된다. 교육을 마치면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시험은 10월 전후에 할 예정이다. 부안지역 어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고창과 군산 등지의 어민도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

정읍시민장학재단, 고교생·대학생 154명에 장학금

(재)정읍시민장학재단은 올해 모두 고등학생과 대학생 154명을 선발, 모두 2억7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시는 8일 공고를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자 접수를 받고 내달 23일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장학선발에서는 대학교 신입생의 경우에도 당해 학기 성적을 적용,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확대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계층까지 가산점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남원시, 전국 최초 산악레저스쿨 운영

남원시는 8일 “날로 증가하는 등산 인구의 저변 확대에 따라 지난 6일 지리산 산악 레저 스쿨 발대식을 갖고 안전한 산행문화 보급 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산악 레저 스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리산 산악 레저 스쿨은 지리산을 걸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을 통해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기회를 얻고 체계적인 교육으로 각종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특히 전문 등산 인력 양성 등을 위해 유명 산악인들이 다량한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물레길 탐방, 남원 역사 바로알기, 전문 산악인과 함께 하는 지리산 등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시, 아중저수지에 수상산책로 조성

전주 도심의 휴식공간인 아중저수가 수상산책로와 테마광장을 조성,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385만㎡ 규모의 유원지인 아중저수지는 1976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그동안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됐으나 지난 2005년 유원지 용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아중저수지 모양

을 본떠 ‘고래의 꿈’이라는 테마를 설정, 체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2015년까지 총 사업비 65억원을 들여 저수지에 800여m의 산책로와 공연·전시 가능한 수상광장 2곳, 테마파크 3곳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수상산책로를 만들고 야간 산책과 안전을 위한 LED 경관조명도 산책로의 운치를 보태기로 했다. /전주=박금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부안수박 맛있어”

전년의 솟세 부안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들이 7일 오후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박을 분류하고 있다. 8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월21일에 공식 출범한 이 법인의 지난 6월 말 현재 매출은 70억원으로, 올 연말까지는 매출목표 150억원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안=정재용기자 jyj0681@kwangju.co.kr